

월요광장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금목서 향기가 가만가만 번지는 도서관의 오후, 책을 읽다 눈을 감으면 살랑이는 바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위를 어슬렁어슬렁 날아가는 햇살이 곱다. 비밀의 정원 장독대 옆엔 구절초 경총기를 돌우고, 마당에 씨 떨어져 다시 피어난 봉숭아 꽃 무리가 환하다. 땃쟁이 나비가 날다다 배추 잎사귀 그들은 그윽해서 숨을 쉴 때마다 가을빛이 스며드는 것만 같다. “아, 좋다! 이렇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 안으로 무언가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낀다. 살아보면 우리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동글게 에워싸고 있다고 느낄 때의 충만함 같은 것. 가을에는 모두가 ‘따스’ (따스운) 시간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것들, 기쁨을 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다. 따스 햇볕 누리면서 마음을 따스 기운

가을, 반짝이는 것들에 대하여

으로 덮히면 따스 별과 함께 따스 마음이 된다. 따스 마음이 되면서 따스 말을 꺼낸다. 따스 말을 주고받으며 따스 생각을 길어 올린다. 따스 생각이 밑바탕 되어 따스 사랑을 일군다. 저마다 그 삶에서 빛어낸 느낌과 생각과 뜻을 간직하고 몸매 스미는 기운에 따라 마음이 거뭇나기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이 온통 제 빛깔을 내기 때문이다. 노란 빛깔 들녘, 하얀 빛깔 익새, 보라 빛깔 속부쟁이, 분홍 빛깔 머느리밭풀꽃처럼 쪽빛 하늘은 높고, 계곡으로 흐르는 물빛도 깊어진다. 어제의 나보다 맑고 깊은 눈빛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이다. 가을이 좋은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귀뚜라’ (귀뚜라미) 울음소리 청량한 밤이면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 선다. 무한한 우주 속에 던져진 내가 보이고, 은하계의 한 통통이에서 몇 백만 년 전에 떠난 별빛이 이제 막 감지되는 그 특별한 순간처럼 정신이 반짝 깨어나는 것이다. 계절책 한 권 꺼내어 읽고 싶은 심사도 이 계절이 건네는 기운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부디 ‘계절이 지나가는 대로 계절을 따라 가며 살아가라!’ 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 같이 이 계절의 여신이 주는 물을 달게 마시는 것도 인생의 지혜일 것이다. 시인의 노래처럼 ‘가난의 계절에는 노동으로 꿈을 꾸고 / 독재의 계절에는 온몸으로 저항하고 / 풍

요의 계절에는 적은 소유로 충만하고/ 민주 의 계절에는 국경 너머 눈물이 되고/ 탐욕의 계절에는 다시 광야의 목소리가 되리라.”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 세상은 온통 반짝이는데 사람살이는 빛을 잃어 가는 일이다. 태반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서두려 아픈 이들도 많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맞는 시간들, 먹고살기 힘든 것. 우정이 깨지는 것, 친구들과 세상이 나를 잊는 것,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처 입고 분노하고 몸져눅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던 그것을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무력해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을 다독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안아 주는 일, 그것이 나 에겐 이미 읽은 책 가운데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픈 구절들을 적어 보내는 일이다. “혼자 걷는 길은 없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여행을 하든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은 그 모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는가 “거리 두는 연습… 말을 적게 하고 정서적으로 훌쩍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일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한없이 고약해진다” “역경은 씨앗의 껍질을 벗겨 내는 바람 같아서 우리 존재의 중심부만 남긴다. 그 중심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같은 글들을

주고받는다. 며칠씩 앓고 난 이들이 위로가 되었다고, 덕분에 자기 삶을 더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겠다고 글썽이며 답해 줄 때 그 대답은 찬란한 가을빛보다 더 반짝거린다. 누구라서 무너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까라는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마음에서 오니까. 일어난 일보다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더 상처 입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반짝반짝’이라는 말에는 눈부신 빛이 숨어 있다. 이 숨어 있는 빛은 춤추길 좋아한다. 그때 세상에 찬란한 아름다움이 빛어진다. 너무 시소해서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 자신의 자리에서 반짝이는 존재들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섬세한 시선으로 지켜볼 일이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고, 반짝이는 순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 당신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반짝이게 해 주는 존재는 어디 있는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빛을 춤추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 고



김 성 환
광주 동구구청장

지난 2012년 케이블방송에서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며 옛 추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H.O.T와 젝스키스 등 지금 30~40대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소재들로 ‘추억없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3년 ‘응답하라 1994’, 2015년 ‘응답하라 1988’까지 후속편들이 줄지어 방영됐다. 1997년에서 출발한 ‘응답하라’ 시리즈가 1988년까지 이어지며 80·90년대 대중문화 신드롬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추억과 낭만’을 소재로 한 충장축제를 열어오고 있다. 충장축제는 보고 싶은 사람, 사라진 옛 거리, 그리움의 노래 등 아

충장축제, 90년대 문화와 만나다

련한 옛 추억의 향수를 간직한 이들에게 무릎 감동을 선사해왔다. 그 동안 ‘7800축제’로 이미지가 굳어졌던 충장축제가 올해부터 ‘7080’을 축제 공식명칭에서 빼고 새로운 변화를 선언한다. 장강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새로운 추억을 간직한 8090세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충장축제는 7080뿐 아니라 8090까지 전 세대를 겨냥기 위해 90년대 대중문화를 축제 전면에 내세웠다. ‘응답하라! 1990’ 시리즈가 충장축제에서 실시판 그대로 재현된다는 말이다. ‘세대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충장축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속을 짝짝 채웠다. ‘90’ 축제장을 ‘70’s Street’ ‘80’s Street’ ‘90’s Street’ 등 3개의 공간으로 나눴다. 해당 공간에서 연도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각 세대로 맞춤형 무대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대가족요제·강변가족제 등의 추억을 소환하는 ‘대학가요제 리미티드’, 90년대 음악에 맞춘 댄스경연 ‘Dancing 90’s’ 등 90년대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콘텐츠가 올해 처음 선보인

다. 70년대 교복을 입은 축제 캐릭터 외에도 80년대를 상징하는 청바지·디스코바지, 90년대 힙합스타일을 한 새 캐릭터가 축제장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를 꾸민다. 추억의 롤러장은 예년보다 2배 넓어진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펼친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는 ‘충장사랑방’, 지역문화그룹 공연인 ‘충장스테이지’도 시민들의 참여로 꾸며진다. 시대별 충장축제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민 사진 공모전도 진행된다. 그동안 축제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추억의 고고장과 충장DJ 페스티벌은 ‘AGAIN STAGE’로 통합했다.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추억의 음악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수준 높은 인디밴드 및 DJ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띠운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문화와 예술을 더해 고품격 문화축제로 질적인 전환을 꾀한다. 그 동안의 축제가 대중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대중축제였다면 올해부터는 ‘문화도시 동구’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 문화예술분야 비중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그 일환으로 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해

무등산의 사계를 대형 캔버스에 구현하는 ‘무등의 사계’ 콜라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축제기간에 운영한다. 미술인, 문학인, 음악인, 국악인 등 각 분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향 남도’의 참 멋을 선보이며 무대공연팀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기획공연 위주로 선별해 공연수준을 크게 높였다. 축제의 꽃인 거리 퍼레이드도 예년과 달리 엄선된 팀만 참가시켜 약 3시간 동안 고품격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충장축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충장축제가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관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충장축제가 추구한 변화는 추억의 확장을 통한 모든 세대의 공감이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7080과 8090을 아우르는 모든 세대의 추억이 펼쳐진다. 올해 충장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다. 남녀노소 누구나 청바지를 차려입고 충장축제에서 자유와 젊음, 청춘의 열기를 느껴보자. ‘제14회 충장축제’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없이’에 빠져보시길 권한다.

법조칼럼



홍 지 은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십 수년만의 최장 기간 연휴였다. 2017년 추석, 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격정이 많아진다. 전국의 우체국으로 쏟아지는 우편물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는 평소에도 각종 고지서 등으로 우편물량이 많은 월말부터 시작되는데다가,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에 달했던 만큼 연휴 기간 시작 전 미리 우편물을 부치는 사람들이 많아 집배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이전 연휴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을 것이다. 우체국에서는 이처럼 평상시와 달리 단기간에 우편물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특별 소통 기간’이라고 부른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특별 소통 기간이 정해졌고 집배 노동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평행한 긴장의 끈이 특 끊어

어느 집배원이 당신에게 보낸 편지

지듯, 지난 9월 5일 아침 서광주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한 집배 노동자가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故) 이길연씨는 우체국에서 18년째 집배 노동자로 근무해 온 베테랑 집배원이었다. 그는 지난 8월 초 평소 배달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바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량에 한쪽 다리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됐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씨는 단순 병가 신청을 했고, 서광주 우체국은 이씨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줬다. 이씨가 교통사고 후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하며 발생한 치료비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됐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우체국은 노동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중대 재해사업장 중 한 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집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이 현장의 집배 노동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에만 자살한 집배 노동자들의 수가 이씨를 포함해 6명에 이른다. 이는 교통사고나 사망

한 집배 노동자의 수보다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집배 노동자의 사후유인 우정사업본부와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은 집배 노동자들이 처한 근무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들의 자살, 과로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가 고안한 대책은 황당하게도 ‘무사고 1000일 운동’이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목표 일수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포상 등 일정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소속의 서광주 우체국은 2017년 연말 즈음이면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할 예정이었고, 이 사실은 서광주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서광주 우체국의 자랑스러운 업적 달성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이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씨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단순 병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다. 서광주 우체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망 바로 전 날까지도 보행이 어려웠던 이씨에게 더 이상의 병가 연장은 어려우며 추석연휴 특별소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장 업무에 복귀할 것을 재촉했다. 질책거머리 걷는 자신의 것을

를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이씨는 결국 가족과 동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이 담긴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법원이 어떤 노동자의 자살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는 뉴스가 가끔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그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우울 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악화해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경우다. 자살 그 자체가 아닌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이다. 고 이길연씨의 경우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그저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일 뿐인 것일까?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서광주 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의 죽음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되는 것일까? 고 이길연씨의 죽음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社 說

청와대가 ‘임 행진곡’ 제창까지 막았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5·18민중화운동 기념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창을 막아 온 당사자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지목했는데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2016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 사항’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이 노래의 가사에 숨은 뜻이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또 2015년에도 “여권 일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허용해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라”면서 “여권 내 분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5·18 기념식을 공식 주관한 2003년부터 이

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불리다가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의 가치가 담긴 국민 통합의 노래에 충북 딱지를 붙여 제창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이후 9년 만인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제창이 가능하게 됐다. 문건의 내용은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어떤 공작과 여론 조장을 일삼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30분 늦게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의 칸트를 타위를 청와대에 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304명이 희생된 비극적 참사 속에서도 어떻게든 책임을 면할 거라고 국정 농단과 헌정 파괴를 일삼은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 걸음 앞을 투명하게 밝혀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우야 할 것이다.

원전 사고 피해 보상 국민에게 떠넘겨서야

원자력발전소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한다. 가장 최근의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사고 피해 배상액이 75조 원이었던 점에서도 피해 규모의 막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된 탓인지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피해 배상액은 최대 50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후 170만여 건의 배상 청구를 받아 지금까지 총 75조여 원을 배상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라면 어떨을까? 우리나라는 피해가 선된 팀만 참가시켜 약 3시간 동안 고품격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충장축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충장축제가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관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충장축제가 추구한 변화는 추억의 확장을 통한 모든 세대의 공감이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7080과 8090을 아우르는 모든 세대의 추억이 펼쳐진다. 올해 충장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다. 남녀노소 누구나 청바지를 차려입고 충장축제에서 자유와 젊음, 청춘의 열기를 느껴보자. ‘제14회 충장축제’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없이’에 빠져보시길 권한다.

평균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박승춘 일본 관서학원대 교수는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국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7조 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준이면 4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면 호남 지역의 피해자들은 1억 원 피해 발생시 3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는 데 그친다는 계산이다. 독일·스위스·일본 등은 원전 사고 시 사업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원전 사업자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 보장이 배상액에 미달할 경우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손해배상법을 개정해 책임 한도를 ‘무한’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혹시나 했던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올해도 ‘역시나’로 끝났다. 고은은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후보로 언급됐었다. 역시 매년 후보에 올랐던 무라카미 하루키도 상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일본계 영국 작가 가스오 이시구로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은 마치 자국의 소설가가 상을 받은 것처럼 들쭉했다. 흔히 승진을 하지 못하고 한 직급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를 ‘만년 과장’, ‘만년 대리’라 한다. 직장인의 비애 가운데 하나가 연한이 됐는데도 계속 동년차로 있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 매번 거론은 되지만,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 못하는 이를 가리켜 ‘만년 후보’ 또는 ‘단골 후보’라고 한다. 고은 시인에게 10월은 오랫동안 ‘잔이한 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수상에 기대를 걸었던,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허탈감과 만만치 않다. 모든 잔치의 뒤끝은 공허하기 마련인데, 떠돌이 잔치 이면에는 늘 그렇듯 초대 받지 못한 이들과 조언들의 탐과 눈물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p> <p>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경 회 부 220-0661 (FAX 227-9500)</p> <p>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p> <p>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p> <p>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 style="text-align: right;">※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